



즉시 배포용: 2017년 10월 3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에게 대단히 불공평한 연방정부 조세 계획(FEDERAL TAX PLAN)에 TRUMP 대통령의 개입을 요구하는 서한 발송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금 공제 혜택을 폐지하거나 철회하는 연방정부 조세 계획(federal tax plan)을 규탄하고, 대통령이 뉴욕을 다른 주들을 위한 돼지 저금통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Donald J. Trump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 서한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rump 대통령 귀하,

저는 계류 중인 연방정부의 조세 법안(federal tax legislation)이 모든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귀하께 서한을 보냅니다. 저는 공화당원인 대통령에게 민주당원인 주지사로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뉴욕과 미국을 염려하는 한 명의 뉴욕 주민으로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 의회에 “우리는 민주당원이며 공화당원이지만 그에 앞서 우리는 뉴욕 주민입니다.”라고 자주 말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방 하원은 이번 주 뉴욕과 같은 주들에 대하여 사실상의 “세금 인상” 계획에 해당하는 “세금 감면” 계획의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제안은 다른 주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주로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돼지 저금통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 세금 공제 혜택을 폐지하거나 철회함으로써, 워싱턴의 연방정부는 뉴욕의 중산층 가정과 우리 경제에 죽음의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민주당 지지 주(blue state)들”입니다. 저는 또한 연방의회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노스이스트 지역 외곽 및 웨스트 코스트 지역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치 지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된 동기가 중산층 뉴욕 주민들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신의 출신 주들을 돕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경제가 곤경에 처한 시점에서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 미국이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뉴욕의 경제 심장을 조준한 적대적인 정치적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첫째, 우리의 중산층 가정들이 미국의 나머지 주들을 대상으로 한 감세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헌적인 이중 과세이고 공화당이 항상 지지해 온 모든 원칙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둘째, 뉴욕주가 지난 몇 년 동안 세금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모든 초당적인 성과를 무산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정부 소득세를 인하하고 재산세의 상한을 정하며 지방정부들에게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공유 서비스를 고려하도록 강요하는 동안, 이 연방법은 모든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실제로 세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금 공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뉴욕의 납세자 세 명 중 한 명 또는 330만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평균 5,660 달러가 인상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이 조세 계획은 당연히 연방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저항에 부딪혀 왔습니다. Orrin Hatch 연방 상원 재무 위원장은 “나는 그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금 공제 혜택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반발에 직면한 공화당 지도부는 이제 소위 “타협안”으로 자신들의 조세 계획을 구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책략은 재산세 공제를 허용하지만 주정부의 소득세 공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중산층 뉴욕 가정의 경우, 해당 공제 금액 상실로 인한 평균 세금 인상은 1,715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연방정부의 제안이 뉴욕주 납세자에게 186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고려하고 진행한 이 “타협안”은 뉴욕주의 납세자들이 약 150억 달러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고소득자들만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금 공제 혜택을 잃을 수 있도록 제안된 또 다른 “타협안”은 맨해튼의 42 번 스트리트(42nd Street)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야마위 게임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이 고소득층 뉴욕 주민들을 내쫓아서 뉴욕주를 벗어나 세금을 내게 만들고 따라서 다른 주민들이 늘어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파급 효과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뉴욕은 주정부의 세금을 감면하는 입장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안서와 더불어 제안된 타협안이 모두 뉴욕주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납세자들을 내쫓아서 우리의 세수 흐름을 고갈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뉴욕주 납세자의 5 퍼센트가 연간 소득세 수입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Paul Ryan이 뉴욕을 해치려고 모색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의 뉴욕 출신 공화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선거구 유권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출신 주와 그들의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실제로 뉴욕 출신의 공화당 의원 9 명 중 7 명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지지하는 두 연방 하원의원인 Collins 연방 하원의원 및 Reed 연방 하원의원은 그들이 활동하는 시대의

Benedict Arnold와 같은 배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유권자들을 위한 최선의 이익 대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Ryan 하원 의장의 유일한 정당화는 다른 주들이 뉴욕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그 주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가 진실입니다. 뉴욕은 미국의 모든 다른 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방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 받는 금액보다 480억 달러 이상 많은 재정 기여도가 가장 큰 주입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약탈하여 두 주의 재산을 다른 주들에게 보내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연방의회는 **Reagan** 대통령 재임 시 그것을 시도했지만 총체적인 부당함으로 인해 가장 당파적이고 냉담한 관련자들이 일을 그르쳤을 뿐입니다. 오늘의 제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방 하원의원들이 뉴욕 주민들에게 그들의 돈을 돌려줄 때라고 말해야 합니다. 대신, 현재의 제안은 재정 기여도가 가장 큰 주에서 훨씬 더 많은 세수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불공평합니다.

여기에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제안된 “타협안” 모두는 여전히 뉴욕의 경제를 파괴하고 중산층을 해칠 것입니다. 폐지가 없고 “타협안”이 없으며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 공제 혜택의 상한이 없습니다.

뉴욕은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이것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단지 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뉴욕 주민으로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참조:

연방상원의 **Mitch McConnell** 다수당 리더
Paul Ryan 하원 의장

###